윤치호(尹致昊)의『우순소리』저본 연구

최선아* · 김양선**

〈차례〉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1.2 연구대상
  1.3 선행연구 검토
 2. 윤치호의『우순소리』
   2.1『우순소리』의 시대적 배경
   2.2 윤치호와『의습유언(意拾喩言)』/『해훈유설(孩訓喩說)』의 접점
3.『우순소리』의 저본
  3.1『우순소리』와『의습유언(意拾喩言)』비교
  3.2『우순소리』와『해훈유설(孩訓喩說)』비교
4. 결론

【국문초록】

『우순소리』의 저본은 고대에서부터 전승되어온 이솝우화 원본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우순소리』의 저본을 찾기 위해 2단계에 걸쳐 조사하였다.

* 후포고등학교 교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첫째, 작가를 중심으로 저본을 찾아보고자 중국유학시절 윤치호의 일기와 『(국역) 佐翁 윤치호 서한집』등을 바탕으로 윤치호가 접촉한 인물들을 면밀히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윤치호의 『우순소리』는 다수의 이야기가 『의습유언(意拾喻言)』과 『해훈유설(孩訓喻說)』을 참고하여 집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근거는 다음 3가지이다. ①중서서원의 교사이자 목사 조지 알 로에(Rev. Geroge R. Loehr)가 상해상무인서관(上海商務印書館)에서 로버트 톰의 『의습유언(意拾喻言)』을 저본으로 한 우화집 『해훈유설(孩訓喻說)』를 출판했다는 점과, 윤치호의 일기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인물인 'Brother Loehr'와 조지 알 로에는 동일 인물로 윤치호의 스승이자 먼저 이솝우화를 번역한 번역가로서 『우순소리』의 집필에 촉매제 역할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② 중서서원의 학장 알렌이 창간한 「만국공보(萬國公報)」에 『의습유언(意拾喻言)』의 우화들을 정기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당시 학생이었던 윤치호도 자연스럽게 우화들을 접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③ 『의습유언(意拾喻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해훈유설(孩訓喻說)』과 『우순소리』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순소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본을 찾고자 로버트 톰의 『의습유언(意拾喻言)』, 조지 알 로에의 『해훈유설(孩訓喻說)』와 『우순소리』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 3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① 우선 『의습유언(意拾喻言)』과 『우순소리』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의습유언(意拾喻言)』의 개정판 『이사보유언(伊沙菩喻言)』에는 종교적 신화적인 이야기가 대폭 생략되어 출판되는데, 생략된 이야기가 『우순소리』에 번역되어 재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윤치호는 『이사보유언(伊娑菩喻言)』 등과 같은 개정판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의습유언(意拾喻言)』를 보고 『우순소리』를 집필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의습유언(意拾喻言)』과 『우순소리』가 제작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번역 경향을 비교해보니, 번역의 원 목적은 서로 달랐지만, 윤치호는 로버트 톰과 함께 '작자가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다음은『해훈유설(孩訓喩說)』과『우순소리』를 비교한 결과,『해훈유설(孩訓喩說)』은『우순소리』가 창작되는 과정에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우순소리』의 제1화「굴송사」는 플롯의 유사성과 그 내용면에서『해훈유설(孩訓喩說)』의 제50화「猿判猫爭」에서 그 모티브를 따서 재창작한 스토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에 근거하여,『우순소리』가『의습유언(意拾喩言)』과『해훈유설(孩訓喩說)』을 저본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겠다. 물론 일본유학 당시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통속이소보물어(通俗伊蘇普物語)』와의 접점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280화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된『통속이소보물어(通俗伊蘇普物語)』(1888년)과의 관련성은 금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윤치호,『우순소리』, 저본(底本),『의습유언(意拾喩言)』,『해훈유설(孩訓喩說)』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1908년에 윤치호가 번역 출판한『우순소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이솝우화의 단행본으로 20세기 초 조선의 번역사와 근대계몽기 문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그러나『우순소리』는 1909년 일제의 금서 처분을 받아서 근래까지 그 실본의 소재

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다행히 최근『우순소리』의 실본이 일본 도야마(富山)대학 부속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는 것이 알려져 그 구성과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1)]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우순소리』의 저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번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해서도 알려지지도 않았다. 또 주요 선행 연구조차 주로『우순소리』를 소개하고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저술 목적을 밝히는데 주로 집중되어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우순소리』발간에 영향을 준 인물 및 촉매제가 된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 저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윤치호의 중국유학시절 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이솝우화인『의습유언(意拾喩言)』『해훈유설(孩訓喩說)』과『우순소리』을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저본을 추적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3단계에 걸쳐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윤치호의 일기와『(국역)佐翁 윤치호 서한집』[2)]에 근거하여 중국유학시기 상해 중서서원(中西書院, Anglo Chinese College)을 중심으로 윤치호가 만났던 인물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서서원의 교사이자 목사 조지 알로에(Rev. Geroge R. Loehr)가 상해상무인서관(上海商務印書館)에서 로버트 톰의『의습유언(意拾喩言)』[3)]을 저본으로 한 우화집『해훈유설(孩訓喩說)』를 출판한 사실을 바탕으로[4)], 윤치호의 일기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인물인 'Brother Loehr'와 조지 알 로에와의 관계를 조사해보자 한다. 이는 그들이 만약 동일인물이라면 조지 알 로에는 윤치호의 스승이자 먼저 이솝우화를 번역한 번역가로서『우순소리』의 집필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이효정(2009:163-198).
2) 윤치호 저・윤경남 편(1995).
3) 총82화의 이야기로 그 저본은 Sir Roger L'Estrange(1616-1704)의 英譯이다.
4) 內田慶市(2014:37-38).

둘째,『우순소리』의 저본 파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우순소리』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우순소리』자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한다. 즉 제작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제작자인 윤치호와『의습유언(意拾喩言)』『해훈유설(孩訓喩說)』과의 접점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셋째, 본고에서 주장하는『우순소리』의 저본인『의습유언(意拾喩言)』『해훈유설(孩訓喩說)』과『우순소리』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보다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

윤치호의『우순소리』는 총 두 차례 걸쳐 간행되었다. 일본 도야마(富山) 국립대학에 있는『우순소리』는 1차로 1908년 대한서림에서 발행한 것이다. 일본 도야마(富山)대학은『조선개화기 대중소설 원본 컬렉션(朝鮮開化期大衆小説原本コレクション)』이란 항목으로 조선의 방각본 소설을 비롯한 233종 261책을 소장하고 있다.『우순소리』는 이 컬렉션의 176번 책이다. 표지는 짙은 붉은색이며, 표제는 우순소리이다.[5] 모두 71화의 우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이솝우화를 그대로 직역한 것, 윤치호의 의해 이솝우화가 조선화되면서 변형된 것, 완전히 새롭게 창작된 것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신한국보사에서 발행한『우순소리』는 붉은 색 표지에 본문에는 1차에서는 볼 수 없는 사진 2장이 첨부되어있으며, 새롭게 3편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총74화로 구성되어있다. 신한국보사본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아(·) 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행하였다는 것이다.[6] 본고는 1908년 대한서림본을 연구대상으로 삼겠다.

---

5) 허경진 외,『윤치호의 우순소리 연구』, 보고사, 2010, p.141.
6) 유춘동(2014:169-171).

1.3 선행연구 검토

정명기(2008:413-416)는 『우순소리』를 1910년 4월 12일 신한국보 광고 기사를 들어 재담집이 아니라 비유 소설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판단하였다. 순수한 재담집 성격이 강한 작품이었다면, 굳이 금서 조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본(實本) 없이 광고 기사에만 의존하여 그 신뢰에 의문이 든다.

허경진・임미정(2009:79-109)에서는, 『우순소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이솝우화의 단행본이며 이솝우화를 활용하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품성, 민족의 자강, 외세 침략에 대한 경계, 조선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을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솝우화를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의도와 목적에 따라 원래의 이야기를 변형시켜 우의성과 풍자성을 강화시킨 이솝우화의 재창작(Rewriting)이자, 당대를 우의적으로 비판한 풍자우화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순소리』의 원본을 찾을 수 없었기에 김을한의 『좌옹 윤치호전』에 의존하여 그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원본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소 존재한다. 또 『우순소리』의 저본에 관해 중국의 장석산(張赤山)이 쓴 이솝우화 『해국묘유(海國妙喩)』와 실린 편수가 비슷하고, 둘 다 금서조치를 받은 점, 윤치호가 중국선교회를 통해 공부를 한 점 등을 들어 『우순소리』가 중국에서 번역된 이솝우화를 바탕으로 창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7] 그러나 두 우화의 구체적 비교 분석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효정(2009: 163-198)은 일본 도야마(富山)대학 부속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우순소리』 대한서림본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원본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를 1909년 금서조치를 당했

7) 허경진・임미정(2009:79~109).

고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 원본이 쉽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윤치호가『영어문법첩정(英語文法捷徑)』(1911)과 같은 문법책을 출간하였고 영어를 가르쳤던 것을 고려하면『우순소리』도 영어교육의 목적으로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일본과 중국의 이솝우화를 조사하여『우순소리』의 저본을 추적하였으나 이야기의 배열, 제목, 사용 어휘나 문장체등이 완전히 들어맞는 저본을 찾을 수 없었기에『우순소리』는 외국 우화의 완역이 아닌 일부분의 차역이며, 그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재구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저본조사에 사용된 이솝우화 중 중국 본 입수가 어려워 목록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저본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유춘동(2014:169-171)은 대한서림본에 이어 1910년 5월에 두 번째로 간행된 신한국보사(新韓國報社)본을 찾아 대한서림본과 대조 분석하였다. 대한서림본이 이솝우화와『라퐁텐』을 윤치호가 다시쓰기(Rewriting)를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면, 신한국보사본에 새로 추가된 3화의 이야기는 야담, 필기, 일화 등을 저본으로 재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치호가 책의 저술을 위해 어떤 원천 자료 즉 저본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2. 윤치호의『우순소리』

2.1『우순소리』의 시대적 배경

윤치호는 청년기를 통해 일본 유학 중에는 근대화 과정과 자유 민권운동을 체험하고, 중국 유학 중에는 중국과 조선의 전통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 미국 유학 중에는 기독교과 민주주의 그리고 과학문명에 기인한 성숙된 근대사회를 체험하는 한편 인종차별

과 서구문명의 우월성에 당면하고, 약자의 나라 출신으로 귀국하여 조국의 근대화에 봉사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8)]

그래서 그는 귀국 후 1897년부터 독립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독립협회 제2대 회장을 지내고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독립신문을 맡아 발간하였으며, 만민공동회 회장을 역임하기고 하였다. 1906년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이끌었으며[9)] 교육진흥을 위해 학부에 봉직하기를 희망하여 단기간의 학부협판 재직 중에도 2개 교의 보통학교를 세웠다.[10)] 게다가 을사조약 체결 후에도 송도(松都)에 한영서원(韓英書院)을 설립하는 등 교육 사업에 열정을 쏟았다.

1908년 윤치호가 『우순소리』를 집필할 당시의 조선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1907년에는 통감이 행정권을 가지고 한국 내정을 처리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또 한국 군대를 해산시키고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빼앗겼으며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11)]도 박탈당했던 시기로 그는 현실적으로 국권회복은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체념하여 직접적인 국권회복운동의 참여보다는 교육·계몽 운동을 통해 상실된 독립을 오직 실력양상으로만 회복하고자 애국계몽운동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윤치호는 전통사회와 근대화 도상에 있는 사회 그리고 이미 근대화된 사회를 모두 경험하여 전통적 사상, 질서, 체제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근대적 사상, 질서,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조선을 전통적 사회로부터 근대적 사회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근대변혁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유학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을 과학기술의 발

---

8) 전복희, 「19세기말 진보적 지식인의 인종주의적 특성 - 독립신문과 윤치호의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輯 1号, 1995, p.139.

9) 박지향, 『윤치호의 협력일기』, 이숲, 2010, pp.22~23.

10) 유영렬, 앞의 책, p.186.

11)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 2005, p.78.

달과 자본주의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 시대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를 직접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학 경험에서 얻은 세계정세를 담아『우순소리』를 출판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을 계몽시키려 하였다.

2.2 윤치호와『의습유언(意拾喩言)』『해훈유설(孩訓喩說)』의 접점

1840년 로버트 톰에 의해 제작된『의습유언(意拾喩言)』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다양한 형태로 전파되었다.[12]. 이『의습유언(意拾喩言)』을 저본으로 하여 서양인에 의해 출판된 이솝우화는 다음 (1)과 같다.

(1)『의습유언(意拾喩言)』을 저본으로 한『이솝우화』
① James Summers, *A handbook of the Chinese language* (Oxford, 1853)
② J.M.W. Farnham, 上海清心書院『小孩月報(Child's Paper)』(1875~1915)
③ George R. Loehr, 上海廣學會『孩訓喩說(A collection of useful fables)』(上海商務印書館, 1900)
④『意拾喩言』의 漢英対訳版과 方言訳

위의 (1)은 대부분 선교사로서 중국에 파견된 인물이거나 중국어 교사로서『의습유언(意拾喩言)』를 번역하여 출판한 것들인데 특히 ③은 1900년 상해상무인서관(上海商務印書館)에서 발간한 것으로 중서서원의 교사이자 목사인 조지 알 로에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총 104화로 구성된『해훈유설(孩訓喩說)』은 중국인의 교육과 기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쓰여진 우화로 구성되어있다

조지 알 로에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서 1882년에 중국으로 건

12) 内田慶市, 앞의 책, pp.37~38.

너와 상해(上海), 소주(蘇州), 송강(松江), 호주(湖州) 등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기독교 포교활동을 하였다. 그의 저서로는『사도기략(使徒紀略)』『해훈유설(孩訓喩說)』 등이 있다.[13] 『근대내화외국인인명사전(近代來华外国人名词典)』를 통해 조지 알 로에가 중국으로 건너온 시기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이 남아있지 않아 그의 중국에서의 행적을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윤치호는 청년기부터 죽을 때까지 60년간 일기를 쓴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초창기 일기(1885년 10월 17일자)에서 유(劉: Leahan)선생[14]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였으며, 더불어 중서서원 교사 시기(1893～1895)의 일기에서도 'Brother Loehr'라는 이름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만약 'Brother Loehr'와『해훈유설(孩訓喩說)』의 저자 조지 알 로에가 동일 인물이라면 윤치호의『우순소리』는 중서서원과의 인연으로 탄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그 근거로 다음 2가지를 들고자 한다.

그 첫 번째 근거로는 'Brother Loehr'라는 인물이다. 'Brother Loehr'는『해훈유설(孩訓喩說)』의 저자 조지 알 로에와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윤치호는 본넬와 알렌의 알선과 감리교 교회의 후원으로 1888년 9월 28일 미국으로 유학, 밴더빌트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다. 그런데 그 밴더빌트 대학 유학시기인 1889년 5월 18일자 알렌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15] (2)에 의하면 'Mr Loehr'를 학교에서 만났으며 중국 선교에 대해 설교를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

13)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所編, 『近代來華外國人名詞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p.293.

14)『近代來華外國人名詞典』에 의하면 劉는 Loehr의 중국식 이름이며『孩訓喩說』에서도 劉樂義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있다.

15) 윤치호 저・윤경남 편(1995:52).

(2) 1889년 5월 18일 편지
Your kind letter of the 12th ult. came to hand yesterday.
I had the pleasure to meet Mr. Loehr here a few weeks ago. He lectured to the theologies in the Wesley Hall Chapel on China mission.
(번역: 저는 몇 주 전에 이곳에서 로에 박사님을 만나 즐거웠습니다. 그 분은 중국 선교에 대해서 웨슬리 홀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하셨습니다.)
佐翁 윤치호 서한집(1995)

그밖에도『(국역)佐翁 윤치호 서한집』에 따르면 윤치호가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알렌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Mr Loehr'의 안부를 묻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Mr Loehr'라는 인물이 편지에 언급되고 있다.[16] 게다가 윤치호의 일기에서도 'Young John Allen'과 더불어 'Brother Loehr'라는 이름이 빈번하게 출현하는데[17] 다음 (3)의 1893년 6월 2일자 일기에서는 'Brother Loehr'의 요청으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3) 1893년 6월 2일 금요일 일기
Received a letter from Dr. Allen to the effect that Brother Loehr calls for a relief and that I should make arrangement to return as soon as practicable. So after all I was not wrong in my decision.
(번역: 로에 형제가 도움을 요청해 왔으니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곧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알렌 박사의 편지를 받았다.)
9집 尹致昊日記 三(한국사료총서 제19집)

---

16) 1885년 2월 29일, 1886년 10월 25일, 1889년 5월 18일, 1899년 8월 5일, 1918년 5월 1일(이 날은 특히 Loehr의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당시 조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7) 윤치호 일기 1893년 11월 17일, 11월 26일, 12월 12일, 1894년 1월 3일, 1월 5일, 1월 18일(이 날의 일기에서는 특히 'Brother Loehr'의 성격이 묘사되어있다.) 1월 21일, 1월 28일, 2월 13일, 2월 23일, 3월 21일, 3월 22일, 4월 21일 그밖에도 그의 일기 곳곳에서 'Brother Loehr'가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1893년 6월 20일자 일기[18]에서는 'Brother Loehr'의 부모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날의 일기에서는 'Brother Loehr'의 성과 함께 이름인 George가 언급되고 있으며, 내용에서 윤치호가 평소 'Brother Loehr'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Brother Loehr'라는 이름은 그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와 중서서원 교사로 활동할 시기(1893~1895)에 특히 다음 (4)와 같이 빈번하게 출현하기도 한다.

(4) 1894년 1월 21일 일기
After the S.S. my Chinese teacher Mr. 鄒 took me to Dr. Farnham's chapel to see a Christian girl. She looked rather pretty but too young. Dr. Farnham said to me kindly "We are all interested in you and your sucess". After tiffin at Brother Loehr's as usual, spent an hour or two with Dr. Allen. I love his cheerful conversation as the sweet smile of his daughter Mary.
(번역: 주일학교가 끝난 후 나의 중국어 교사인 추 선생이 나를 판햄 박사의 채플(Dr. Farnham's Chapel)로 데려가 한 기독교도 여학생을 보게 했다. 그녀는 매우 예쁘지만 너무 어려 보였다. 판햄 박사는 내게 친절히 "우리는 모두 당신과 당신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느 때처럼 로에 형제의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한 후 한 두 시간을 알렌 박사와 함께 보냈다.)
19집 尹致昊日記 三(한국사료총서 제19집)

결국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Mr Loehr'나 'Brother Loehr'

18) 1893년(조선개국 502년, 고종 30년, 계사년) 6월 20일 화요일
Called on Mr. and Mrs. Geo. Loehr the parents of Brother Geo. Loehr of China. Found them plain good religious folks worthy of such a son. Mrs. Chedel the oldest sister of Bro. Loehr favors him very much. (번역: 중국에 가 있는 지오 로에의 부모가 되는 로에 씨 부부를 방문하였다. 그와 같은 훌륭한 아들을 가질 만한 훌륭한 신앙심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9집 尹致昊日記 三(한국사료총서 제19집) 참조

는『해훈유설(孩訓喩說)』의 저자 조지 알 로에와 동일 인물이며, Loehr는 윤치호의 중국 유학 초기부터 교사가 된 이후에도 스승이자 동료로서 윤치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도 1900년에 조지 알 로에에 의해 발간된『해훈유설(孩訓喩說)』은 윤치호가 1908년에 번역한『우순소리』의 집필에 촉매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근거로 1874년 중서서원의 학장 영 존 알렌에 의해서 상해에서 발행된 신문「만국공보(萬國公報)」[19]이다. 이「만국공보(萬國公報)」에도 1877년부터 1888년까지(499~517期) 영국선교사 윌리엄 뮤얼헤드(William Muirhead, 慕維廉)가 대리편집(代理編輯)을 하던 기간에 매기(每期)마다 우화를 몇 편씩 게재되었는데 이 우화들 역시 로버트 톰의『의습유언(意拾喩言)』에서 전재(轉載)한 번역 작품[20]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말 중국인들은 서양 기독교와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기보다는 문화, 출판, 교육, 의료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하였고[21] 알렌도 이런 이유에서「만국공보(萬國公報)」에 짧지만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인 이솝우화를 게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5)와 같이 윤치호가 미국 유학시기에도 알렌의 배려로「만국공보(萬國公報)」를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윤

---

19)「만국공보(萬國公報)」는 1868년『교회신보(敎會新報)』라는 이름으로 상해에서 발간되어 1874년에「만국공보(萬國公報)」로 개명되었고 이후 1883년부터 1889년까지 6년간 휴간기간을 제외하고서는 1907년까지 발간된 신문이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종교적인 내용이 중심이었으나「만국공보(萬國公報)」로 개명한 후에는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정치, 과학, 예술, 공업 및 외국 각국의 국내소식 등을 광범하게 소개하는 종합적 시사 신문으로 바뀌었다. 盧在軾(2011:1-2) 참조.

20) 오순방,「19세기 기독교 선교사의 中文期刊雜誌와 中文基督敎小說의 出版과 傳播」,『중국학연구』, 65호, 2013, p.66.재인용

21) 盧在軾(2011:13).

치호는 1885부터 1888년까지 중서서원에서 수학하던 시기 및 미국유학시기, 미국유학을 마치고 중서서원에서 교편생활을 했던 시기[22]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국공보(萬國公報)」를 통해 이솝우화를 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1889년 11월 28일 일기
> 오눌언 미국 사은일Thanks Giving Day 원주 휴과ᄒᆞᄃᆞ。일전 임선싱이 보ᄂᆡᆫ 만국공보의 상히 중서서원의 이를 말ᄒᆞ 논이 잇기로 번역하여 존선싱긔 보ᄂᆡᄃᆞ。작야눈 오ᄃᆞ。
> 19집 尹致昊日記 一(한국사료총서 제19집)

결국 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윤치호는 중서서원을 매개로 알렌이 발행한 신문인 「만국공보(萬國公報)」를 통해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의습유언(意拾喩言)』를 자연스럽게 접하여 『우순소리』 제작 시 참고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조지 알 로에는 윤치호보다 먼저 이솝우화를 번역한 번역가이자 스승으로서 윤치호의 『우순소리』가 탄생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이는 『의습유언(意拾喩言)』에도 없는 우화[23]가 『우순소리』에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2개의 중국풍 이솝우화와 『우순소리』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은 제3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만 『우순소리』가 발간된 1908년 전후의 일기가 남아있지 않고 현존하는 일기 어디에서도 조지 알 로에가 『우순소리』의 번역

---

22) 2집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2(한국사료총서 번역서2) 1894년 11월 24일 참조

23) 본 조사에 따르면 『의습유언(意拾喩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해훈유설(孩訓喩說)』과 『우순소리』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스토리가 있다. 즉 『의습유언(意拾喩言)』과 『우순소리』에 동일하게 출현하는 이야기가 총 30화, 『의습유언(意拾喩言)』, 『해훈유설(孩訓喩說)』, 『우순소리』에 모두 출현하는 이야기가 총13화, 『의습유언(意拾喩言)』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해훈유설(孩訓喩說)』과 『우순소리』에만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이야기가 총 10화가 존재한다.

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은 애석하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금후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3.『우순소리』의 저본(底本)

3.1『우순소리』vs『의습유언(意拾喩言)』

『의습유언(意拾喩言)』는 서양인을 위한 중국어 학습교재라는 목적에 맞춰 중앙에는 중국어, 우측에는 발음, 좌측에는 영문번역을 배치하여 모두 82화의 이야기로 편찬되었으나, 이후 서양 선교사들이 계몽적 성격에 주목하여 중국어 부분만 따로 떼어내 단행본으로 출판하면서 중국내에서 사회적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버전은 영국 런던 선교회의 워털 메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 麥都思, 1796～1857)에 의해 1853년에 출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이사보유언(伊沙菩喩言)』이다.[24]『이사보유언(伊沙菩喩言)』는 총73화로 종교적 신화적인 '神'과 '佛'이 들어간 이야기가 대폭 생략되어 출판된다.[25]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생략된 이야기 중 제57화「車夫求佛」와 제77화「人獅論理」가 윤치호의『우순소리』제14화「사자와 사람」, 제41화「차부와 부처」로 번역되어 재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윤치호는『이사보유언(伊娑菩喩言)』등과 같은 개정판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의습유언(意拾喩言)』를 보고 그것을

24) 内田慶市「イソップ東漸—ロバート・トームと『의습유언(意拾喩言)』」,『關西大學文學論集』, 49卷 第一号, 1999, pp.20~24.
『意拾喩言』개정판:『伊娑菩喩言』(上海施醫院藏版),『伊娑菩喩言』(1868香港英華書院印刷),『伊娑菩喩言』(1868香港英華書院印刷),『漢譯伊蘇普譚』(1876),『伊娑菩喩言』(1893香港文裕堂活版),『漢譯批評伊蘇普物語』(1898)

25) 内田慶市,「日本に伝わった漢譯イソップ物語」,『中國華東·華南地區と日本の文化交流』,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國際共同研究シリーズ3 關西大學出版部, 2001, pp.188~191.

바탕으로『우순소리』를 집필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의습유언(意拾喩言)』의 번역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의습유언(意拾喩言)』의 제1화「豺烹羊」의 시작은 "When Pwan koo(盤古) first began, all the birds and beasts Pwan koo beginning birds beasts all could speak." 태초에 반고 때 모든 새와 짐승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제3화「話獅熊争食」에서는 "In the chronicle of the Hills and Seas(山海経) it is written, that a lion Hills seas chronicle written lion with a bear were once contending together for a with bear together contend one lamb…"『山海經』의 기록에 의하면 사자와 곰이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을 사이에 두고 자기 것이라고 다투기 시작했다. 제6화「獅驢同猟」에서는 "In the time of the Emperor Ta Yu(大兎), a Lion with a Ta-Yu's time a Lion with stupid fellow of an Ass went a-hunting together" 우 대왕 통치기, 사자와 어리석은 당나귀가 함께 사냥을 떠났다 로 이야기가 시작하는 등 중국인이 읽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치다 케이이찌(内田慶市)의「イソップ東漸—ロバート・トームと『意拾喩言』」에 의하면,『의습유언(意拾喩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저자 로버트 톰은 원어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中国化'를 시도해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고 모럴을 '지극히 中國的'인 것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예로 제1화「豺烹羊」의 시작은 '盤古初, 鳥獣皆熊言(반고의 천지개벽 때 새와 짐승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제16화「龜兎」에서는 '禹疎九河之時(우가 구하를 다스렸을 때)', 제30화「瓦鐵缸同行」에서도 '昔大禹治水, 泗水騰湧(옛날 대우가 치수를 행했을 때, 쓰수이강 회화가 소용돌이쳐)', 제56화「狐鶴相交」에서는 '神農', 제3화「獅熊爭食」의 출전이『山海経』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솝우화를 완전히 중국화 시켰음을 강조하였다.[26]

---

26) 内田慶市, 앞의 책 p.19.

1860년 북경조약 이후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기독교사상으로 대표되는 서양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사들과 유교로 대표되는 중국 전통사상을 배경으로 한 중국 사대부계층과는 피할 수 없는 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중국 전통문화와 기독교문화 사이에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에 서양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유교사상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했다. 그들은 일찍이 16세기 말 17세기 초, 마테오리치로 대표되는 예수회 천주교 선교사들이 행하였던 합유(合儒) 정책을 계승하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당시 중국 사회에 유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유교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중국 사대부들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문화를 존중해주는 행동을 취하였다. 심지어 마테오리치는 유가복장을 하고 스스로 '서유(西儒)'라고 자칭하면서 중국의 유교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였다.[27]

그리하여 남경조약(南京條約) 및 추가조항의 체결에서 통역으로서 활약한 로버트 톰도 이러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이솝우화』를 번역할 때 당시 선교사들과 동일한 태도를 취해, 내용을 중국풍으로 각색하고 상당히 평이한 백화(白話)에 가까운 문체를 사용했던 것이다.

결국『우순소리』가 로버트 톰의『의습유언(意拾喻言)』를 근거로 해서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다음 〈표 1〉과 같이『우순소리』의 총 71화의 스토리 중『의습유언(意拾喻言)』와 동일한 이야기가 30화에 이르며, 그 외 많은 부분에서도 다음 (6)과 같이 로버트 톰의『의습유언(意拾喻言)』과 비슷한 번역 경향을 띠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27) 盧在軾,「19세기 말 來華 선교사들의 유교에 대한 인식-『萬國公報』의 내용을 중심으로-」,『진단학회』, 116号, 2012, pp.70~71.

〈표 1〉『우순소리』∩『의습유언(意拾喩言)』(30개)

	『우순소리』(71)	『의습유언(意拾喩言)』(82)
1	7. 강한 놈의 경계	1.豺烹羊
2	32. 금알 낫넌 거위	4.鵞生金蛋
3	6. 허욕 만흔 개	5.犬影
4	5. 강약부동	6.獅驢同獵
5	56.여우와 나귀	13.驢穿獅皮
6	50. 톳기와 자라	16.龜兎
7	47. 여우와 신포도	19.狐指罵蒲提
8	9.개구리와 황소	21.蛤蟆水牛
중략		
21	34.참나무와 나무꾼	51.斧頭求柄
22	17.은혜와 압졔	54.日風相賭
23	42.짱속에 잇넌 재물	55.農夫遺訓
24	23.여우와 두루미	56.狐鶴相交
25	41.차부와 부처	57.車夫求佛
26	36.여호와 원승이	75.猴君狐臣
27	14.사지와 사람	77.人獅論理
28	38.생쥐 방울 단다	78.鴉効鷹能
29	58.점쟁이	79.星者自悞
30	29.궤거름	81.老蟹訓子

(6) 조선 특유의 관직명과 의복명, 직업명의 예
제1화 '량반'
제10화 '소리'
제21화 '원님'
제42화 '만석군'
제53화 '고사'
제67화 '맹자' '유건' '도포' '대제학' '대사성'
제71화' 공초'

즉 (6)은 바로 조선 특유의 관직명과 의복명, 직업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밖에도 (7)과 같이 20세기 초 조선의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는 어휘도 빈번하게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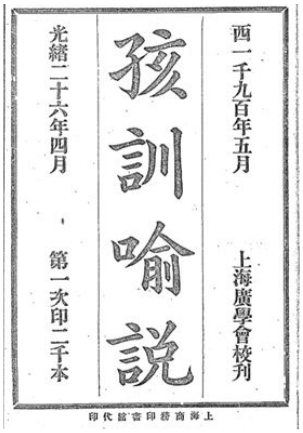
(7)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는 어휘의 예
제3화 '미국'
제10화 '압제정치'
제12화 '동포형뎨' '보호약죠' '독립' '부강'
제45화 '동포' '사천년'
제70화 '부어국 8백만 동포'
(8) 윤치호의 논평의 예
제 3 화 '외인의 심부름으로 미국하는 사람들 싱각 좀 하시오'
제10화 '압제 정치 밋헤는 말 잘하여도 쓸 대 업다'
제12화 '제가 제 보호 못하고 남의보호를 엇지 밋으리오'
제32화 '백성을 죽여가며 재산을 한 번에 빼앗다가 필경 재물과 빅성과 나라를 다 일허바린 사람들도 적지 안치'

또한 교훈이자 윤치호의 논평에서는 정치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위 (8)과 같은 국내외 정세를 엿볼 수 있는 논평은 총20개의 논평 중 모두 14개에 달한다. 이러한 논평이 첨부된 것은 당시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에 의해 1905년부터 대한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어 사실상 외교권이 박탈된 시기였기 때문이었다.[28]

3.2『우순소리』vs『해훈유설(孩訓喩說)』

총104화의 이야기로 구성된『해훈유설(孩訓喩說)』은 러시아『정속통고(政俗通考)』와 같이 그 출처를 기록해 저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우화에서부터 중국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의습유언(意拾喩言)』류의 이솝우화 및 중국고전, 조지 알 로에가 기독교적으로 창작한 우화까지 다양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중국사회에서 이솝우화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도 사용되어졌는데 조지 알 로에 또한 그의 책제

28) 이효정, 앞의 글, p.169.



목에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듯이 『해훈유설(孩訓喩說)』을 통해 중국사회에서 기독교 사상의 전파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유익한 각국의 우화 및 중국의 옛 고전을 골라 집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해훈유설(孩訓喩說)』을 인쇄한 상해상무인서관(上海商務印書館)은 1897년에 미국장로회 인쇄소인 미화서관(美華書館)에서 근무한 하서방(夏瑞芳) 등이 장로회 목사 비계홍(費啓鴻)의 원조로 설립된 출판사로 초기에는 상업부기를 주로 취급하였지만 1902년에 정식으로 인쇄소를 개설한 후 1903년 중국에서 제1부가 되는 초등학교 「최신교과서(最新教科書)」를 출판하고 이후 초중고의 교과서가 전국에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

『해훈유설(孩訓喩說)』의 표지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서기 1900년 5월 上海廣學會校刊, 가운데에 孩訓喩說이라는 제목이 있으며, 왼쪽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광서(光緒) 26년 4월 제1차 인쇄 2000본(第一次印二千本)이라 기록해 중국식 연호와 음력 날짜, 인쇄한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뒀으며 맨 아래에는 상해상무인서관대인(上海商務印書館代印)이라고 인쇄한 곳까지 기록해두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영어로 A Collection of Useful Fables라는 제목 아래로 목사 'REV. GEORGE R. L OEHR'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그는 Anglo Chinese College, Sbangbai의 교수라고 쓰여 있다. 『해훈유설(孩訓喩說)』은 이 한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책 전체가 중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 102화[29]의 이야기 목록이 나온다.

29) 목록에는 102화의 이야기가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104화이다. 제82화 「因貧受損」가 84화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출현하는데 그 내용은 서로 다르

목록이 끝나면 중서서원(中西書院) 미국교사 劉樂義 편역(中西書院美國教士劉樂義編譯)이라는 조지 알 로에의 중국식 이름과 함께 드디어 제1화「對鏡自 憐」이 시작된다.

『해훈유설(孩訓喩說)』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그 내용이 상당히 기독교적이다. 서양선교사들은 19세기 중국 선교 초기에 중국인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 소설의 오락성과 전파성에 착안하여, 성경□고사를 장회소설(章回小說)로 편집 개작하여 성경□보급에 주력하였다.[30] 또 주로 성경에서 인물고사(人物故事)를 추출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소설양식으로 개편(改編) 개작(改作)하였는데, 이렇게□성경을 개편하는 것은 성경과 중국문학이 융합된 전형적인 사례[31]라고 한다.

초기 선교사들이 이토록 포교를 위해 성경을 소설형식으로 편집 개작 하였던 것과 같이『해훈유설(孩訓喩說)』에도 우화를 통해 선교하고자 애썼던 로에의 흔적이 책 곳곳에서 나타난다. 즉『해훈유설(孩訓喩說)』제37화「靠天得求」에서는 한 상인이 장사가 되지 않아 많은 빚을 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만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팠던 그는 이웃에게 삽을 빌려 자기 집 바닥의 돌을 떼어 돈으로 바꾸어 음식을 사려한다. 막 구덩이를 팠을 때 그 속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과 두루마리(軸)가 들어 있었다. 기뻐하며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다음 (9)와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9) 一曰窮極致富二曰悲極生樂三曰靠天者終必得求。
(번역: 일왈 가난함이 극에 달하면 부를 가져온다. 이왈 슬픔이 극에 달하면 즐거움이 찾아온다. 삼왈 하늘을 기대하는 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다. 그리고 83화「咎由自取」는 목록에는 없지만 본문에는 존재하는 것을 보아 인쇄상의 오류로 보인다.

30) 오순방,「晩淸 中文基督教小說의 정의와 범주」,『중국학연구』, 제57집, 2011, p.39.

31) 상동

즉 (9)와 같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며 익숙한 '樂極生悲 否極泰來'의 즐거움이 극에 다다르면 비애가 찾아오고, 불운이 극에 달하면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구절을 이용하여 '靠天者終必得求' 하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적인 교훈을 첨가하여 끝을 맺고 있다.

또 제94화 「懶爲貪源」은 개미와 배짱이(『해훈유설(孩訓喩說)』에서는 개미와 메뚜기임) 이야기로 다음 (10) 심약(441~513)의 『장가행(長歌行)』의 한 구절을 인용하였다.

(10) 古詩云 少壯不努力, 老大徒傷悲, 其斯之謂與。
(번역: 고시에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다.)

그밖에도 제96화 「不欲勿施」에서는 제목에서부터 다음 (11) 『논어(論語)』에 나오는 '己所不欲, 勿施於人(내가 원하지 않은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이라는 유명한 한 구절을 인용하였으며 말미의 교훈도 같은 취지의 글을 첨부하였다.

(11) 凡事不欲人之加諸我者亦不可加諸人此之謂也。
(번역: 내게 강요한 원하지 않은 모든 일을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말이다.)

이와 같이 『해훈유설(孩訓喩說)』은 17세기 초 중국적응주의를 이용해서 선교를 시작했던 기존의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마테오리치(Matteo. Ricci)나 니콜라스 트리고(Nicolas Trigault)가 유교의 덕으로 결론을 맺는데 비해 조지 알 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경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는 『해훈유설(孩訓喩說)』의 제16화 「小巧除害」에서는 구주(救主), 제60화 「烏鴉求白」, 제70화 「靠天可貴」, 제98화 「惡由漸入」, 제101화 「各訴苦衷」에서는 하나님(上帝)

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성경의 가르침을『해훈유설(孩訓喩說)』의 이야기 곳곳에 삽입하여 설교한다. 정리하면 다음 (12)~(15)와 같다.

(12) 제60화「烏鴉求白」
此可見世人不能改變基本性凡人皆當知足於上帝之位置不當妄求非分之寵榮也。
(번역: 세상 사람들은 그 본성이 변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감사해야 하며 분수에 맞지 않는 은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3) 제70화「靠天可貴」
草聞之泣而答曰請勿復言自古君子不忘其舊我雖不美無色無香但我亦托根於上帝之土中賴上帝雨露之恩得以生長是亦爲上帝之奴僕也我於己身本無足貴惟賴上帝之恩耳　余聞其言頗有至理可見人世中人無一非在天大父之兒女豈得以其位卑家貧而忽之乎。
(번역: 풀이 듣고 울면서 왈, 더 이상 군자들이 고난을 같이한 친구를 잊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 나는 예쁘지도 않고 색도 향기도 없지만 하나님의 땅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은택으로 자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 자신의 몸은 귀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도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이 너나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찌 그의 낮은 지위와 가난한 집안으로 경시 할 수 있으랴.)
(14) 제98화「惡由漸入」
由是一惡方萌衆惡卽隨之而入居於我心祛我固有之善使我爲罪惡之奴矣。然則人當何如乎當謹防禱告以拒衆惡之入當護衛心門拒之於始入之途使無惡能入之人欲如是去惡須求上帝扶助上帝樂助吾人之心輳吾人禱求上帝之心更切也。
(번역: 그래서 하나의 악이 더 큰 악을 불러온다. 즉 내 마음 속을 파고들어 선을 이기고 나를 죄악의 노예로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죄 많은 사람을 막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지켜 죄악이 못 들어오게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악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

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려는 마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이다.)

(15) 제101화「各訴苦衷」

此可見凡人在世皆有煩難不宜怨天尤人當以上帝所給我者爲滿足也。

(번역: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곤란함이 있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해야 한다.)

결국 목사였던 조지 알 로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적응주의에 발맞춰 우화집을 편찬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여『해훈유설(孩訓喩說)』을 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윤치호는『우순소리』의 제21화「나무꾼과 부처님」, 제58화「점쟁이」에서 부처와 미신에 대해 경계하고, 제67화「사자의 흉계」에서는 맹자의 말씀만 외며 맹자의 사상만을 고집하다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당나귀 이야기를 통해 유교적 세계관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해훈유설(孩訓喩說)』과 같이 성경을 인용하거나 하나님과 같은 직접적인 어휘는 삼가하고 있다.

다음으로『해훈유설(孩訓喩說)』은 부조리한 사회를 완곡하게 풍자한다.『孩訓喩說』제35화「予奪自由」에 등장하는 왕은 관대하다는 명성 뒤로 실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며, 제36화「無理苛求」는 왕의 무리한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여우이야기로 여우는 권력에 대항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하지만『우순소리』가 정치성이 강한데 비해『해훈유설(孩訓喩說)』은 보다 교육적이고 기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은 (16)『해훈유설(孩訓喩說)』제68화「貪多反失」와 (17)『우순소리』제32화「금알 낫넌 거위」이다

(16) 貪多反失

昔有一人畜一鵝日生一蛋未饜基欲以爲此鵝腹中儲蛋不少我若殺之卽可一旦盡取基蛋。於是殺鵝見基腹中並無一蛋方知大吳悔莫能追。此鵞旣

死欲求如前之日得一蛋而不能矣。凡貪多之人往往並基所當得惑已得之物而亦失之此可以儆世之貪矣。
(번역: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거위 한 마리를 길렀다. 거위가 하루에 알을 한 개 낳았다. 그 사람은 이를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 거위 뱃속에 알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 거위를 죽이면 하루에 그 알을 다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거위를 죽였다. 그러나 알이 하나도 없어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거위는 이미 죽었다. 예전처럼 하루에 한 알도 얻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은 때때로 눈앞에 얻을 물건에 현혹하여 이미 얻은 것을 잃어버린다. 이는 세상의 탐욕적인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該訓諭說』 제68화

(17) 금알 낫넌 거위

한 사람이 거위 한 마리를 두엇더니 매일 황금알 한 개식 낫넌지라 탐심이 발동하야 거위 배속에 잇난 금알을 한번에 다 가질 욕심으로 거위를 잡아 배를 갈으고 본즉 아모 것도 업서 금알도 일코 거위도 업새더라

백성을 죽여가며 재산을 한번에 빼앗다가 필경 재물과 빅성과 나라를 다 일허바린 사람들도 적지안치

『우순소리』 제32화

위의 (16)과 (17)은 그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말미에 첨부되어있는 논평에서는 각기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해훈유설(該訓諭說)』의 경우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기독교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우순소리』는 당시 조선의 권력자들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으로 20세기 초 조선의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정치성이 강하다.

『우순소리』는 현실모순을 비판하고 개조하려는 시도[32]를 우화의 풍자적 형식을 빌려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이다.『우순소리』

32) 이유미,「1900년대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글쓰기 방식의 상관성 연구」,『현대소설연구』, 2005, pp.142~143.

에서는 당시 기득세력인 양반과 권력자들의 부패와 전횡에 대한 풍자가 우화 곳곳에서 보이는데 제1화 「굴송사」에서는 굴 한 개로 시비가 붙은 행인들을 판결하는 척하며 빼앗아 먹는 이는 양반이며, 제67화 「사자의 흉계」에서는 사자의 흉계에 속아 어리석게 잡아먹히고 마는 돼지와 당나귀는 각각 대제학과 대사성으로 조선의 관리이며, 제68화 「말의 성명」에서도 여우의 꼬임에 속아 말을 잡아먹으려다 오히려 말 뒷발에 채이는 늑대는 화족이자 대제학으로 당시의 기득권 세력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또한 『우순소리』의 제1화 「굴송사」는 플롯의 유사성과 그 내용으로 보아 『해훈유설(該訓諭說)』의 제50화 「猿判猫争」에서 그 모티브를 따서 재창작한 스토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솝우화는 긴 세월을 경과하여 전승되는 동안에 얼마간의 변용이 더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훈유설(該訓諭說)』에서 유래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지 알 로에와의 관계 및 『해훈유설(該訓諭說)』의 제50화 「猿判猫争」의 스토리에 기인하여 살펴보면 고양이 두 마리가 먹이를 둘러싸고 시비가 붙자 재판관인 원숭이에게 판결을 부탁한다. 하지만 원숭이는 교활한 재판관으로 공평하게 판결하는 척하면서 본인이 다 먹어버린다. 이것은 행인 두 명이 굴 하나로 시비가 붙자 지나가는 양반에게 판결을 청하지만 욕심 많은 양반은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껍질만을 나눠준다는 『우순소리』의 구성과 내용이 흡사하다.

그리고 『전국책(戰國策)』의 '漁父之利'에 대해서는 이미 『의습유언(意拾喩言)』의 제3화 「獅熊爭食」의 교훈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3화 「獅熊爭食」에서는 곰과 사자가 동맹을 하여 양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을 한다. 하지만 서로 양을 사이에 두고 다툼이 생기고 둘이 싸움으로 지쳐있는 틈을 타 길을 지나가던 배고픈 여우가 양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우화의 말미에는 '漁父之利'에 대한 중국의 옛 고사를 교훈으로 첨부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훈유설(該訓諭說)』의 제88화 「兩敗俱傷」에도 그대로 출현하

며 제22화「弱子得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타난다. 그러나『우순소리』의「굴송사」는『해훈유설(孩訓喩說)』의「猿判猫爭」와 유사하게, 분쟁 끝에 재판 그리고 재판관에게 물건마저 탈취당한다고 하는 식의 스토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이로 보아『우순소리』의 제1화「굴송사」는『라퐁텐』이나『전국책(戰國策)』을 참고했다기보다는『해훈유설(孩訓喩說)』의 제50화「猿判猫爭」에서 그 모티브를 따서 재창작한 스토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표 2〉와 같이『해훈유설(孩訓喩說)』과『우순소리』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이야기가 총10화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우순소리』∩『해훈유설(孩訓喩說)』(10개)

	『우순소리』(71)	『해훈유설(孩訓喩說)』(104)
1	26.나귀의 실수	24.取樂受苦
2	70.황새와 부어	45.爲惡必報
3	1.굴송사	50.猿判猫事
4	49.나귀의 지각	61.求輕得重
5	60.박쥐	64.游移兩可
6	37.비둘기와 개미	67.以德報德
7	18.톳기와 개구리	87.知人自足
8	25.곰과 무신한 사름	92.遇難潛踪
9	52.개미와 멋쒸기	94.懶爲貪源
10	64.새앙쥐와 고양이	100.外貌難恃

4. 결론

『우순소리』의 저본은 고대에서부터 전승되어온 이솝우화 원본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우순소리』의 저본을 찾기 위해 2단계에 걸쳐 조사하였다.

첫째, 중국유학시절 윤치호의 일기와 『(국역) 佐翁 윤치호 서한집』 등을 바탕으로 윤치호가 접촉한 인물들을 면밀히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윤치호의 『우순소리』는 다수의 이야기가 『의습유언(意拾喩言)』과 『해훈유설(孩訓喩說)』을 참고하여 집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근거는 다음 3가지이다. ①중서서원의 교사이자 목사 조지 알 로에(Rev. Geroge R. Loehr)가 상해상무인서관(上海商務印書館)에서 로버트 톰의 『의습유언(意拾喩言)』을 저본으로 한 우화집 『해훈유설(孩訓喩說)』를 출판했다는 점과, 윤치호의 일기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인물인 'Brother Loehr'와 조지 알 로에는 동일 인물로 윤치호의 스승이자 먼저 이솝우화를 번역한 번역가로서 『우순소리』의 집필에 촉매제 역할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② 중서서원의 학장 알렌이 창간한 「만국공보(萬國公報)」와 『의습유언(意拾喩言)』의 우화들을 정기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당시 학생이었던 윤치호도 자연스럽게 우화들을 접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③ 『의습유언(意拾喩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해훈유설(孩訓喩說)』과 『우순소리』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로버트 톰의 『의습유언(意拾喩言)』, 조지 알 로에의 『해훈유설(孩訓喩說)』와 『우순소리』를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 3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① 우선 『의습유언(意拾喩言)』와 『우순소리』를 비교검토한 결과, 『의습유언(意拾喩言)』의 개정판 『이사보유언(伊沙菩喩言)』에는 종교적 신화적인 이야기가 대폭 생략되어 출판되는데, 생략된 이야기가 『우순소리』에 번역되어 재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윤치호는 『이사보유언(伊娑菩喩言)』 등과 같은 개정판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의습유언(意拾喩言)』를 보고 『우순소리』를 집필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의습유언(意拾喩言)』과 『우순소리』가 제작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번역 경향을 비교해보니, 번역의 원 목적은 서로 달랐지만, 윤치호는 로버트 톰과 함께 '작자가 독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다음은『해훈유설(孩訓喩說)』과『우순소리』를 비교한 결과,『해훈유설(孩訓喩說)』은『우순소리』가 창작되는 과정에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우순소 리』의 제1화「굴송사」는 플롯의 유사성과 그 내용면에서『해훈유설(孩訓喩說)』의 제50화「猿判猫争」에서 그 모티브를 따서 재창작한 스토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에 근거하여,『우순소리』가『의습유언(意拾喩言)』과『해훈유설(孩訓喩說)』을 저본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겠다. 물론 일본유학 당시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통속이소보물어(通俗伊蘇普物語)』와의 접점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280화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된『통속이소보물어(通俗伊蘇普物語)』과의 관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번역의 '等価'는 눈에 보이는 '形式'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価値'에 있으며, 그 가치는 어떤 민족의 사유, 문화를 집합 혹은 추상화된 것이다.[33] 필시 1840년의 로버트 톰, 1900년의 조지 알로에, 1908년 조선의 윤치호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価値'를 통해 각자의 시대적 상황과 자신들의 신분에 맞춰, 각자의 목적에 따라, 번역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번역을 단순한 형식적 등가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시대적 배경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시점에서 작품을 볼 때 그것을 제작한 이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3) 内田慶市「第4章 モリソンの文法論およびその翻譯觀」,『文化交涉學と言語接触中國言語學における周緣からのアプローチ』, 關西大學出版部, 2010, p.82.

참고문헌

김소정, 「번역문학과 문화변용」, 『中國語文學』, 제56輯, 2010, pp.466～467. pp.471～472. p.477.

盧在軾, 「『萬國公報』에 나타난 청말 科擧제도와 교육제도의 비판에 관한 내용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2011, pp.1～21.

_____, 「19세기 말 來華 선교사들의 유교에 대한 인식-『萬國公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단학회』, 116号, 2012, pp.70～71.

박지향, 『윤치호의 협력일기』, 이숲, 2010, pp.22～23.

오순방, 「晩淸 中文基督敎小說의 정의와 범주」, 중국학연구, 제57집, 2011, p.39.

_____, 「19세기 기독교 선교사의 中文期刊雜誌와 中文基督敎小說의 出版과 傳播」, 『중국학연구』, 2013, 65호, p.66.

유영렬, 『개화기 윤치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p.14. pp.59～60.

유춘동, 『윤치호의 『우순소리』 신한국보사본(新韓國報社, 1910)에 대하여』, 근대서지 10호, 2014, pp.169～171.

윤치호(저)・윤경남(편), 『佐翁 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 1995, p.52.

윤치호(저)・김상태(編譯), 『물 수 없다면 짖지도 마라』, 산처럼, 2001, p.19.

이유미, 「1900년대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글쓰기 방식의 상관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005, pp.142～143.

이효정, 「윤치호의 『우순소리』소개」, 『국어국문학』, 153号, 2009, pp.163～198.

정명기, 「일제 치하 재담집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49号, 2008, pp.413～416.

전복희, 「19세기말 진보적 지식인의 인종주의적 특성 -독립신문과 윤치호의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輯 1号, 1995, p.139.

표언복, 「양계초와 대한제국기 애국계몽문학」, 언문연구 44, 2004, p.452～453.

허경진・임미정, 「윤치호 『우순소리(笑話)』의 성격과 의의」, 『語文學』第105輯, 2009, pp.79～109.

허경진・표언복・유춘동 編著, 『근대계몽기 조선의 『이솝우화』 보고사』, 2009, p.2.

허동현, 「개화기 윤치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1권 0호, 2006, pp.117～155.

安籐信広, 「『イソップ寓話』受容の一側面 —『意娑菩喩言』の日本における受容について—」, 『東京女子大学比較文化研究所紀要』, 72号, 2011, p.4.

内田慶市, 「イソップ東漸—ロバート・トームと『의습유언(意拾喩言)』」, 『関西大

学文学論集』, 49巻 第1号, 1999, pp.10～11. pp.20～24.
_____, 「日本に伝わった漢訳イソップ物語」, 『中国華東 · 華南地区と日本の文化交流』,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国際共同研究シリーズ3 関西大学出版部, 2001, pp.188～191.
_____, 「第4章 モリソンの文法論およびその翻訳観」, 『文化交渉学と言語接触中国言語学における周縁からのアプローチ』, 関西大学出版部, 2010, p.82.
_____, 『漢訳イソップ集』, ユニウス, 2014, pp.5～12, p.19, pp.37～38.
ジェレミー・マンデイ, 『翻訳学入門』, みすず書房, 2009, pp.106～108. p.233.
永田小絵, 「中国清朝における翻訳者および翻訳対象の変遷」, 『Interpretation Studies』, 6号, 2006, p.212.
渡部温譯, 『通俗伊蘇普物語』, 平凡社, 2001, p.74.

(**투고일**: 2017. 3. 8 **심사완료일**: 2017. 4. 4 **게재확정일**: 2017. 4. 10)

이름: 최선아
소속: 후포고등학교
주소: 경북 울산시 후포면 후포로41 후포고등학교
전자우편: wang26@hanmail.net

이름: 김양선
소속: 영남대학교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280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전자우편: kimysun@yumail.ac.kr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al Text of *"Usunsori"* by Yun Chi-Ho

Choi, Sun-A · Kim, Yang-Sun

To find the original script of "*Usunsori*," I searched figures who contacted Yun Chi-Ho thoroughly based on his journal and *Jwaong Yun Chi-Ho Letters*(*佐翁尹致昊書翰集*) in this research. As a result, Brother Loehr and George R. Loehr had been confirmed as the same person, and Yun's teacher George R. Loehr wrote *HaeHoon YooSul*(*孩訓喩說*) on 1900, student Yun Chi-Ho published "*Usunsori*" on 1908. George R. Loehr wrote *HaeHoonYooSul*(*孩訓喩說*) earlier and he acted as a catalyst to the birth of "*Usunsori*" as his teacher. And the dean of Anglo Chinese College Young John Allen let student Yun Chi-Ho to be exposed to *Aesop's Fables* naturally by publishing *Man KookGongBo*(*萬国公報* The Chinese Globe Magazine)

As a result of having compared *EuSeupYooUn*(*意拾喩言*) of Robert Tom and *HaeHoonYooSul*(*孩訓喩說*) of George R. Loehr with "*Usunsori*", I found that Yun Chi- Ho eventually translated to let readers contact author directly without any interference as possible as *EuSeupYooUn*(意拾喩言) and *HaeHoonYooSul*(*孩訓喩說*), even though they had different purposes *EuSeupYooUn*(*意拾喩言*) and *HaeHoonYooSul*(*孩訓喩說*) are for the Christian propagation, and "*Usunsori*" is for the enlightenment.

Key words: Yun Chi-Ho, *Usunsorio*, original text, *EuSeupYooUn*(*意拾喩言*), *HaeHoonYooSu*l(*孩訓喩說*)